



300자로 **hiphot** 섭취하는 **스낵뉴스**

독일 점령한 라쿤, 없애는 법이 '소시지'?

독일에서 생태계 외래종 라쿤(미국너구리)이 소시지로 개발·판매돼 논란이 일고 있다. 판매점은 독일 카데의 한 정육점으로, 주인 미카엘 라이스는 친환경 국제식품박람회 내놓을 제품을 고민하다가 라쿤 소시지와 살라미를 개발했다.

현재 독일에서는 급속도로 늘어난 라쿤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사냥을 허용하고 있다. 과거 모피로 만들기 위해 라쿤을 들여왔다가 개체수 조절에 실패, 약 200만 마리의 라쿤이 야생에서 토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식품으로 가공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 센켄베르크 자연연구협회는 "독일 내 생물다양성, 특히 이들이 먹는 파충류와 양서류에 큰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생태 전문가는 외래종 관리 측면에서 어색한 사례는 아니나 인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명다양성재단 관계자는 "일본에도 사슴 고기 등이 있다. 외래종 관리 측면에서 어색한 사례는 아니다"면서도 "라쿤이 스스로 타지에 발을 들인 것이 아닌 만큼, 무조건적인 사냥·섭취보다 나은 해결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라쿤. 위키미디어

#SnackNews #라쿤개체수조절 #정성현기자 #박지은편집디자인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재택 근무 없애자” 공무원 구조조정안 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발탁한 일론 머스크가 공무원 숫자를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미국 관료주의는 너무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방조돼 왔다"며 "각 정부 기관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파악하고 불필요 인력은 과감히 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주 5일 사무실에 나오도록 하면 많은 수가 스스로 그만둘 것"이라며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테이프로 바나나를 벽에 붙인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 '코미디언'이 620만달러(86억7000만원)에 낙찰됐다. 이번 경매의 낙찰자는 예상가 100만달러의 6배가 넘는 금액을 써낸 중국 출신 가상화폐 사업가 저스틴 선이다. 저스틴은 테이프, 바나나와 함께 진품 증서와 상한 바나나 교체 방법 등을 전달받게 된다. 그는 이 작품을 두고 "예술과 가상화폐 사회를 잇는 문화 현상"을 나타낸다고 구매후 바나나를 먹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매 작품 속 바나나는 맨해튼 과일 가게에서 35센트(500원)를 주고 산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물약 어떤 맛?” 디아블로 증류주 나온다

광주·전남지역 주류 기업 보해양조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증류주 '악마의 영혼'을 출시한다. 이 제품은 블리자드 대표 게임인 '디아블로'의 헤리티지를 담았다. 디아블로는 출시된 지 28년이 지난 지금도 강력한 영향력과 깊이 있는 스토리로 전 세계 수천만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붉은색 술은 디아블로의 빨간악을 연상시키며 사슬 모양의 뚜껑은 봉인을 상징한다. 청양고추를 침출해 만들어 스파이시한 맛이 느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악마의 영혼'은 25도, 500ml 용량으로 출시됐다.



‘킵보드 면허’ 생기나

킵보드 전용 운전면허 도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경찰청은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운전면허 신설과 관련한 합리적 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허 취득 방식은 필기 시험만 치르거나 필기와 기능을 함께 보는 방법, 온라인 교육 이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킵보드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탈 수 있으나, 관리 허술로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미성년자가 전동 킵보드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900여건에 달한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